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5월 25일 목요일 (음 4월 30일) 제181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수원으로 떠나기 전에 김승수 전주시장이 24일 전주 라마다호텔을 찾아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르기 위해 수원으로 떠나는 축구국가대표팀을 격려하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社告

제11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일시: 5월 28일(일) 오후 4시
장소: 전주 종남문 문화광장(남부시장 입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해 전북 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와 전주매일신문사가 공동으로 '제11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동주최: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매일신문
- ▲주관: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시지소
- ▲후원: 전북도, 전주시, 각 언론사, 전북장애인신문사
- ▲예선일시 및 장소: 5월 27일(토) 오전 10시, 인권상담소 회의실 ☎ 286-6678
- ▲문의: 063-286-6678, 285-6676, FAX) 287-6676

전주매일

해양수산업, 블루오션으로 키운다

▶ 도, 해양발전계획 수립 계획

중·장기 비전 용역 오는 8월 마치고

'바다의 날 행사' 계기로 수산업 재도약 가속화

고창 만들권역 등 어촌마을 활성화도

'바다가 다시 된다!, 바다가 미래다!'

전북도가 새만금을 비롯해 군산과 김제, 부안, 고창을 중심으로 한 해양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해양수산업을 블루오션산업으로 재도약시키는 프로젝트 가동에 나섰다.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해양개발시대에 전북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전북도는 해양수산분야 바이오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정착하고 연안생태 환경가치 복원, 맛과 멋이 있는 살아 가고 싶은 연안과 어촌을 꾸미는 등 중앙정부의 발전계획과 연계·협치 전략을 내세워 대한민국이 동북해 해양관광대국으로 부상하는데 전북이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해양수산 분야의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수립 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해양수산 중·장기 비전 및 발전계획 등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오는 8월까지 마치고 했다.

특히 바다를 고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안전함을 쏟고 있는 가운데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가 기념일인 바다의 날을 유치,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기념식을 연다.

전북도는 세계최장(33km)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새만금 방조제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 군산항 개항 118주년, 2023년 세계 팸바리대회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31일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새만금 신시가지에서 개최기로 했다.

또한 이번 바다의 날 행사를 계기로 전북도의 도정10대 핵심 프로젝트에 포함돼 있는 해양수산업 재도약 프로젝트도 더욱 가속화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매진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이번 기념식을 통해 새만금이 21세기 동북해 해양 중심도시로 위상을 높여 나가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올해 바다의 날 행사는 오는 6월 4일까지 '바다 주간' 동안 전시와 체험활동 등 다양한 해양관련 연계행사가 이어진다.

연계행사로는 군산 신치항 일원에서 해양레저체험, 선박모형 만들기, 해양환경체험과 갑오징어와 꽃게를 주제로 하는 오랑게 축제가 열리며, 신시도 어촌체험마을에서는 전통어업인 독살, 바지락 캐기 등의 갯벌체험이 가능하다.

또한, 유목민들의 생활상을 직접 접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에서 주최하는 '제1회 새만금 노마드 축제'가 6월 2일부터 4일까지 새만금 야미도 다기능부지에서 개최되며, 유채꽃과 함께 즐기는 야외 캠핑장 체험과 불꽃 퍼레이드 등이 연계해 진행된다.

전북도는 '전북 해양수산업 재도약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지난 2월 해

양수산업에서 주관하는 2016년 해양수산시책 평가에서 타 도에 비해 해양수산시책이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고 우수 지자체로 최초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태다.

또한, 4월에는 해양수산부의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분야 공모에서 전국의 쟁쟁한 권역을 물리치고 고창 만들권역(100억원), 부안 위도대리.전막마을(30억원)이 선정돼 내년 2021년까지 13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어촌마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하진 지사는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를 계기로 해양수산분야가 활력을 되찾아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되길 바란다"면서 "그동안 침체돼 있던 해양수산업이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바다가 품고 있는 미래와 희망을 현실로 만들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해양수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군산조선소, 현대중공업 대주주 세습 희생양인가?"

박재만 도의원, "회사분할 후 경영권 승계과정 주목" 눈길

7월 폐업예정인 군산조선소를 놓고 현대중공업 대주주의 상속과 경영권 세습을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내려진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원 박재만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군산 현대중공업 폐쇄가 조선경기 불황 탓으로만 말하는데 이상한 점들이 감지된다"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러한 의구심의 배경으로 박 의원은 "금융권에서는 1년 뒤 재가동설이 흘러나오고 현대중공업에서 수주가능한 일을 앞으로 2년 이상 일감이 풍부한 현대미포조선으로 수주를 유도한다는 제보도 들어온다"며 "군산조선소 물량 배정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실제 지난 달 현대중공업의 수주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군산조선소의 가동 재개는 감감무소식이다.

현대중공업의 경영권 승계 의혹은 지난 2월 27일에 열린 임시 주주총회 이후 해당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대중공업은 임시주총을 통해 4개의 기업으로 분할을 결정했고, 지난 10일 현대중공업과 이 회사로부터 분할된 신설 법인 3곳 등 4개 회사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번 분할이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경쟁력 강화 조치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재계에선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향후 대주주(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일가가 지주회사인 현대미포티크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그룹 장악력을 더욱 끌어올린 뒤, 정기선 현대중공업 전무에게 경영권 승계가 이뤄질 것이라 추측이 나오면서다.

군산조선소 폐쇄 철회를 주장해온 박 의원은 "불황 탓이라면 기동중단을 막을 명분이 적지만 상속과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군산공장을 중단한 거대한 기업윤리에 위배되며 군산시민들에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라 생각한다"며 "회사분할 이후 경영권 승계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재용 기자

매일 INDEX

3면 -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

4면 - 전북에서 기본소득 실험 실시

16면 - 전주 첫 마중길 희망나무 헌수식

청소년 미술대회의 성공적 개최 기원합니다

시민과 함께가는 여민동락의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與民同樂)

소통의정 열린의회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구분	회기	회의 일수	주요 내용
제219회 임시회	01.09(월) ~ 01.16(월)	8	· 2017년도 시정계획 보고(분회)의 ·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상임위)
제220회 임시회	02.15(수) ~ 02.17(금)	3	· 조례안 등 안건심의
제221회 임시회	03.16(목) ~ 03.23(목)	8	· 결산검사 위원 선임 · 주요사업장 현상방문
제222회 임시회	04.17(월) ~ 04.21(금)	5	· 1회추경예산안 심의
제223회 임시회	05.16(화) ~ 05.23(화)	8	· 상반기 의원 연찬회
제224회 제1차 정례회	06.14(수) ~ 06.23(금)	10	· 시정질문 · 2016회계연도 예비비결산안 승인
제225회 임시회	07.03(월) ~ 07.07(금)	5	·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제226회 임시회	09.12(화) ~ 09.21(목)	10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 2회추경 예산안 심의
제227회 임시회	10.16(월) ~ 10.20(금)	5	· 하반기 의원 연찬회
제228회 제2차 정례회	11.13(월) ~ 12.15(금)	33	· 다듬연도 시정연세(시장) · 시정질문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2017년도 결산추경안 심의 · 2018년도 예산안 심의

www.jcc.or.kr